

# ‘고용 쇼크’ 광주·전남 실업자 쏟아진다

### 광주 3만9000명·전남 4만4000명... 지난해 보다 크게 늘어

### 역대 최악 수준... 광주형 일자리·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무색

## 호남통계청 발표 3월 고용동향

광주·전남에 실업자들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 산업계 구조조정과 경기 침체 여파로 지역 고용 상황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광주형 일자리 창출’과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1일 발표한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광주지역 실업자는 3만9000명으로 1년 전(2만명)보다 1만9000명 늘었다. 월별로 보면 2011년 3월(3만8000명)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였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 탓인지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1년 전에 비해 1만1000명 줄어 16만2000명에 불과했다. 제조업 종사자도 1년 전보다 5000명 감소한 10만8000명에 그쳤다.

실업률도 치솟고 있다. 광주지역 3월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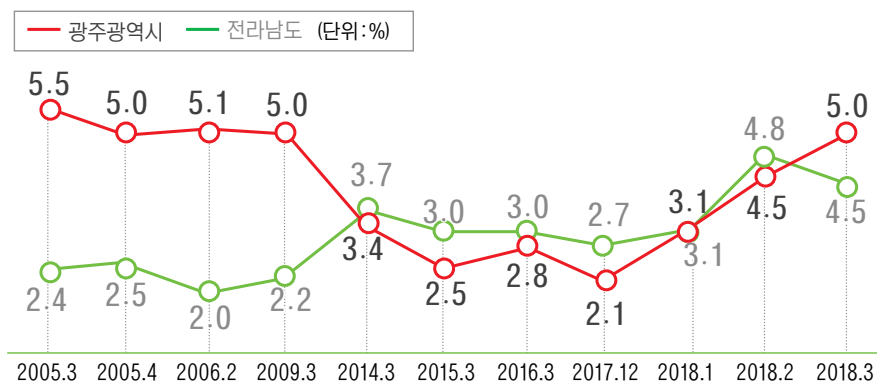
업률은 5.0%를 기록했다. 월별 실업률로는 지난 2009년 3월(5.0%) 이후 9년 만에 최대치였다.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동안 광주 실업률이 5.0%를 넘어섰을 때는 ▲2005년 2월(5.0%) ▲ 3월(5.5%) ▲ 4월(5.0%) ▲ 2006년 2월(5.1%) ▲ 2009년 3월(5.0%) 등 5차례에 불과하다. 역대 ‘최악의 실업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만하다.

또 광주의 경우 올 들어 1월(3.1%)→2월(4.5%)→3월(5.0%) 등으로 실업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이 무색한 형편이다.

일각에서는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 시기가 늦춰지면서 평소 2월에 실업자에 포함되던 응시자가 올해는 3월에 실업자에 반영되면서 고용 지표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 ■ 광주·전남 실업률



분기별로 파악되는 청년실업률도 올 1분기 9.3%로, 전년도 1분기(6.1%)보다 3.2%포인트 증가했다.

전남지역 사정도 다르지 않다. 지난달 전남 실업률은 4.5%로 2월(4.8%)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지난해 2월(5.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를 작성된 2001년 이후 역대 4번째로 높았다. 이 때문에 ‘청년층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겠다’는 구호도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많다.

실업자는 4만4000명으로 지난해 2월(5만4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자 증가세도 지난해 11월 2만명 아래 12월(2만6000명)→2018년 1월(3만명)→2월(4만7000명) 등으로 가파르다.

전남의 경우 조선업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제조업 종사자가 1년 전(11만3000명)보다 6000명 줄었고 공공업 종사자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권위 6000명 감소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 1분기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납부

###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은형)은 오는 25일까지 1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와 전남·북 지역 법인사업자(8만2000명)는 해당 기한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18만6000명)는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세액을 해당 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광주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돕고자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모든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했다.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에 있는 사업자에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00년 향한 호남 정통지

**광주일보**

창간 100주년



## 일자리안정자금·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식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주)광주신세계 2018.4.11(수)

(좌)광주신세계 최민도(왼쪽에서 5번째) 대표이사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김영미(왼쪽 6번째) 청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신세계-광주고용청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과 일자리안정자금 확산과 일자리창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신세계의 구인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을 위한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행정적 지원·홍보에 나선다. 또 11일 광주신세계 지하 2층 직원식당에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및 접수, 구인상담 등을 위한 고용지원출장센터를 운영한다.

이 밖에 두 기관은 채용박람회 행사와 ‘일·생활균형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최민도 광주신세계 대표는 “우리라벨의 선두주자인 광주신세계는 직원들이 즐거운 직장 생활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문화 개선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가계대출 조였더니 자영업자 대출 증가...1분기 역대 최대

정부 정책 여파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계속 늘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18년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해 말 개인사

업자(자영업자) 은행대출 잔액은 295조6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2조9000억원 늘었다. 개인사업자 은행대출 증가액은 작년 11월(3조2000억원) 이후 최대다.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6조8000

억원이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였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는 일부 은행들이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린 영향도 있다.

/연합뉴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44.22 (-6.52)
- ↓ 금리 (국고채 3년) 2.17% (-0.02)
- ↑ 코스닥 885.38 (+8.08)
- ↓ 환율 (USD) 1066.30원 (-0.10)



## 효성, 베트남 ‘사이공 텍스 2018’ 첫 참가

### 호찌민 섬유·의류 전시회...다양한 제품 개발 제안·전시

효성은 11일부터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리는 섬유·의류 전시회 ‘사이공 텍스 2018’에 처음으로 참가, 다양한 제품 개발을 제안할 예정이다.

올해 30회를 맞는 사이공 텍스는 원사, 원단뿐 아니라 섬유와 관련된 부자재 및 기계까지 모든 제품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베트남 최대의 섬유 종합 전시회다.

효성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부드러운 촉감의 스판덱스 섬유인 ‘크레오라 에코소프트’와 수영장의 염소 성분 강화 ‘크레오라 하이클로’, 불쾌한 냄새를 없애주는 ‘크레오라 프레쉬’ 등을 선보인다.

또 사계절 입고 습한 베트남 현지 기후에 맞춰 자외선 차단, 냉방 기능성을 갖춘 폴리에스터 소재인 아스킨과 나일론 소재인 아쿠아엑스 등도 전시한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 현대차, 소형 SUV ‘엔씨노’ 중국시장 공략

현대차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사진)의 중국형 모델인 ‘엔씨노(ENCINO)’로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11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중국 합자법인 베이징현대차는 10일 중국 상하이(上海) 월드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엔씨노 출시 행사를 개최했다.

엔씨노는 중국 고객의 취향을 디자인에 반영하면서 주행 성능, 현대 스마트센스가 적용된 능동형 주행안전기술, 바이트 커넥티비티 서비스 등을 적용한 개념차로 꼽힌다.

엔씨노가 포함된 소형 SUV의 경우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차종 중 하나로 지난 2013년 5개 차종 21만 1000여대 수준에서 지난해 16개 차종 67만6000여대가 팔리는 등 급성장했다.

외관 디자인은 기존 SUV에 비해 낮고 넓어 보이는 형태로 레드 투톤 루프와 새로운 모양의 포그 램프(안개등), 사크 안테나(상어 지느러미 모양의 차량 안테나), D-컷 스티어링 휠(상·하단이



평평한 운전대)는 중국 전용으로 고안된 디자인 요소다. 또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를 비롯 차선이탈 경고(LDW), 전자제어 브레이크(DAB), 후측방 충돌 경고(BCW) 및 후방 교차충돌 경고(RCCW) 등 첨단 안전사양이 적용됐다.

편의사양으로는 통신허 내비게이션 ‘바이두 맵오트’와 대화형 음성인식 서비스 ‘듀어OS’(DuerOS), 원격제어가 가능한 ‘블루링크’ 등을 갖췄다.

베이징현대차는 엔씨노로 중국 내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젊은층을 공략하기 위해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쿠(Youku)의 댄스 경연 프로그램을 협찬하고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는 등 마케팅 활동에 나선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를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조 오찬 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명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